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DEC 25 1964

태교양주도

전	발행주사
행	김정수 장원성
집	김창학
월장	김창학

제 一五三号
서기
一九六四年十二月八日
12/18
1964

소련수상·영국방문예전 일손영국수상의 초청을 수락

(통신 12월 1일 밤 A.P) 일손영국수상은 노동국회에서 노동교민에 관한 연설을 주어, 소련수상이 영국방문의 초대를 응락하였고 발표. 이와동시에 소련으로 원손수상의 소련방문은 수락한 것은 명백히 하였다. 그 주간, 수상의 영국방문을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신년 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일손식은 말하였다.

동·서수뇌수교단으로 전자

일손노동당수는 오늘의 회고연설중 다음과 같이 나를 통하여 의견을 말하고 꼬았나. 이러한 회답이 단순히 서쪽의 내부에선만이 아니고 더 광범위하게 자주 있는 것은 유의의 한 것은 아까도 그것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방비축소에 노력

무엇보다 제一番으로 한 것은 국방비축소의 진을 발전하는 것이다. 영국 국내에선도 재검토가 전면 회각의 필요가 일관적으로 두고 있어 있다. 노골적인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핵무기를 하여 았다. 그 결과로 우리는 도리어 국가방위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약하게 하고 국가의 독립성까지 위험하게 하고 있다. 금년의 국방예산은 21억 파운드(21억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의 윤으로 국방비의 대차이 계획된다면 국방비는 증대하지 않고 출비는 21억 파운드(21억 파운드)로 천만불(2천만불)로 대량하게 된다.

라스코·드 고리 휴대

(라스코·드 고리·미국무장관은 오늘 '엘제' 공연으로 드물게 휴대를 행하고 행색은 화장하는데 두 수비는 종종의 행사를 발실험에 의해서 행하기 확신 방지의 문제는 더 진으로 한 것이 되었는가에 의거해 알지를 보았다. 또 라스코·드 고리를 확신했을 때 라스코 씨의 이번 불란서방문증에 있어서의 제2회째의 것이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남비에드 남공산군

전주의 전사자 조백조 120

(작년 12월 1일. 수요) 미대련인 12월 첫 밤에 의하면 남비에드 남정부군은 전주 3백 추병의 전사자와 7백 30명의 전상자를 내었는데 이것은 대비에 따른 혼란을 봄에 전주에서 지난 1개월간 헛고의 손실로 되어 있다. 또 전주의 민족적인 전사는 10명이었다. 한편 공산유격대의 손실은 더 많고 전사자는 3백 70명이라고 한다. 그간 불교도가 조백령이나 반찬반원 정부의 3000신한 단식을 개시하였다.

미국 국회에의 일반교서 — 월 4일 밤에 부송 —

(화요일 저녁. AP) 꽃든 대통령은 고 후령 쿠린·D. 르-조 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관례로 돌아가 1월 4일 개최의 신의회에의 표석연설은 밤 9시 부터 할 것을 오늘 발표하였다. 이것은 대통령 제정의 소위 위대한 사회 건설의 내용을 일반인중에 철저히 인식시키고 밀으로부터 올려오는 압력을 통해 전부 전민과의 조기의회 통과를 목적으로하는 공작이라고 본다.

공화당은 불운다

야간 9시는 레이의 우. 레레비폰 등 청취율이 최고의 시간으로 대통령이 특히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로 “리지 보도관은 대통령은 그의 회의들을 단순한 의회에의 보고가 아니고 미국 전국에의 보고로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언하고 있는데 한편 공화당 후보원들은 국가 진급의 시기로 아는데 의회 초일에 일부러 야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삼원공화당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한진호”(한진호, 이현수)와 “다와”(상원의원 (핵사스 주 공화당 선출)) 등은 대통령의 야간 연설은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놀라운 레이의 청취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 연극을 부리기 위함인 것의 무작위라고 비평하고 있다.

한국-상무·장관·무사·H. 학지 사임

(화성토+수요일 A.P) 이상우 장관, “무사”, H. 학지, 서는 전부 농 소문이 돌고 있으니 오늘 사직, 그 후 일정으로 “뉴저지”, 주공업가 “존·T. 콘나”씨의 임명이 전준대통령으로부터 발표되었다. 그 전네 대통령의 뒤를

(제 3면으로부터 계속)

이어, 쫓순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각처의 사임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최초에 사직한 것은 뉴욕 주로부터 국회 상원의 의원에 출마한 고 대통령의 동생 '라번 키네이' 전 사법장관이었다. 핫지 씨는 전·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전데니 내각 초기부터 내각원. 캐나다 세워 국경으로 차기는 최초부터 4년 이상은 근무 암호 결심으로 일자리였다고 말하고 있다. 쫓순 대통령은 동석의 업적을 주찬, 그의 퇴직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사교장관

금년 이자나 내년 1월 1일 취임 예정인 '론나' 씨 (코트세)는 아코 제약 회사 사장. 지난 대통령 선거 시에는 쫓순 씨 지지에 대활약을 한 사업가의 한 사람이다. 오늘의 각원 개정 발표에 있어 쫓순 대통령은 핫지 콘나, 양서외에 '처칠' 노동장관, AFSCD 조합, 콜지·미니, 회장을 백아관으로 초청하였다.

미소양국은 1기

강대한 해전력 보유 매나매라 강관. 북대서양조약 기구 도입으로

(파리, 12월 1일 AP) 현재 남자에서 개체 중인 북대서양조약 기구 도입으로 회의에서 백나매라 북대양장관은 오늘 다음과 같이 연설. 서구제국의 각자 별개의 해전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발하였다. 현재 이주와 소련은 해전쟁이 이루어난다면 어느쪽도 상대방의 국민을 한꺼번에 1억 명씩 죽일 수 있는 해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이상 해전력 병기에 대자본을 두루 입힐 필요는 없다. 해전쟁이 미국·소련 양국인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미소양국 모두에게 보다도 인구 가치밀한 서구제국에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서구제국을 해전쟁의 싸움터로 만들고, 미소양국은 해전쟁에 부터의 피해를 입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자 미국은 해제 서독을 만 '히트지' 나가자끼에 후회 원자폭탄의 코천 배내자는 해전력을 배비하였다. 이것은 TNT 백만トン의 폭발력에 상당한다. 미국 일부로서는 자국내의 국방과 다차 차트로 서구의 방비라는 것을 항상 논의 중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방지구로 보아 현재의 북대서양조약 기구 제국의 군비태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나라를 빼놓고는 그의 국방비를 현재 이상으로 증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국방정책은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제3면으로부터 계속)

미국 자국민의 방위를 놓기로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해무기는 서구 제국 방위를 위해서도 그 표적을 선정하고 있다. 뼈나뼈라 장관의 인설은 비밀 회의에서 한 것 이었는데 그의 속적이 영·불리시 앙숙의 도립된 해전력 개발을 방지하고 내국이 강경히 추진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행함대 침몰의 추지에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일 회담·반대 공기 완화

○ 일본 외무성 대표 키구 담

(동생 4월 일발. 금호) 한국의 정치사정을 시찰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 중이 었는 일본 외무성의 우사바·참사관은 4월 26일 청년 치국하였다. 동참사관은 지난 21일 항복을 방문하고 노동의 수뇌와 회담하는 등, 한국의 정치정세, 경제정세, 경제협력의 실정, 어떤 실태등을 시찰하였다. 우사바·참사관은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한국의 정치정세, 경제정세는 호전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이 대한 애다. 시노문, 학생들의 반대도 종래보다 훨씬 적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사실상 차차 실시(=)

(와일드 4월 일발. A.P.) 현재 주 40시간의 노동제로는 30주 시간으로 내리게 하는 미국 노동조합과 미국의 회의에서의 투쟁은 지금 곤란한데 노동조합의 기관지에 나타난 보고에 의하면 미국 국내의 노동시간은 국가의 입법과는 별도로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하나씩 단축되고 있다. 노동개발부의 수자에 의해서도 전국 일중 노동자의 40-41-센트에 헤아리는 「백인의 노동자는 이내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으로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라 임금수입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사무처의 3분의 1인 세율의 78·퍼센트, 부인의 복 노동자의 90·7·퍼센트, 양 주업 노동자의 77·퍼센트 등은 모두가 40시간 이하. 30시간 제도 상당히 있고, 노숙의 전기공들은 1년간 이내 주 30시간 제도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각 방면의 새로운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조합측은 전국 노동자들의 사유인에게 뚜렷이 시간 단축을 가족으로 위해 금번의 회의에서도 맹렬한 운동전개의 계획을 진해하고 있다.

한국 고려 가인 화전

우·
한국
한국
한국
한국

St. 10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卷之三

한국의 대학원 기록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卷之三

나를 찾았던 그들이 그녀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그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三

二

ପରିମାଣ ଅଧିକ - ତଥା ଯଦି କୌଣସି ଏହାକୁ ଆଖିଲା - ଏହିନ୍ତିକିଛି ଯାହା ପରିମାଣ ଅଧିକ - ତଥା ଯଦି କୌଣସି ଏହାକୁ ଆଖିଲା - ଏହିନ୍ତିକିଛି ଯାହା

한국학 전체 연구 센터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